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전북중기청, 중기·소상공 제품 소비촉진 위해... 28일까지 온·오프라인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음, 이하 전북중기청)은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정하였으며, 5월, 9월, 12월 총회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공영홍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org)에서 축제 대표 제품으로 엄선된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제품도 3만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해당 우수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찜'하기만 해도 이벤트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구매하고 싶은 제품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찜하기'를 선택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되며, 이벤트 참여자 중 총 50명에게 태블릿 컴퓨터, 아이스크림 케이크, 치킨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동행축제 기간동안 동행축제 누리집에 매일 출석한 사람 중 총 50명에게 무선충전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문화 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북 지역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동행축제가 진행된다. 먼저, 남원 관현루원 일원에서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춘향 COLOR'를 반하리라는 주제로 제94회 남원 춘향제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동행축제와 협력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내 창업준비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축제로 추진되며, 행사 기간 동안 "춘향 동행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일정 금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소외 메시지가 적힌 소외등 매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부안 마실축제도 동행축제와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전통시장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군산 공설시장에서는 동행축제와 연계한 '군산 구시장길 동행축제'를 열어 구매 고객 대상 퐁퐁 게임, 수공예마켓,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디지털카머스 전문가인 '소담스퀘어 전주'를 통해서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소통판매)를 진행한다. 남원 춘향제, 부안 마실축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제품에 프로모션을 더해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전북생생장터'에서도 5월 동행축제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쌀 사는 날', '가정의 달 2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김옥기 기자



'어린이날, 동심 한마당'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이벤트 진행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오는 5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동심 한마당" 이벤트를 준비했다. 어린이날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설천하우스 잔디광장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평소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캐릭터 인형탈 퍼포먼스"와 얼굴에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페이스페인팅", 3분만에 푹푹 죽여 사진처럼 그려주는 "캐리커처",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차음

하는 "이니셜 팔찌 만들기 체험", 그리고 세로 5m 높이의 "대형 에어바운스"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들로 준비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체험 가능하며, 우천시에는 설천하우스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농촌인력 중개센터사업 홍보 나서

농협 남원시지부와 남원 관내 농협, 조합 공동사업법인 등은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원 공설시장에서 농촌인력 중개센터사업의 홍보를 펼쳤다. 농협 등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과 일자리 참여자와 임금과 고용 시간을 협의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일자리 참여자의 당일 상해보험, 교통비 및 간식비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환우 농가 파수·채소 재배 농가 기상재해로 피해 농가 등을 우선으로 일손돕기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농협(063-620-4566) △춘향농협(063-631-7045) △지리산농협(063-630-0428) △운봉농협(010-9896-1262) △임실 순창 순 남원센터(063-635-019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멀칭 비닐 등 폐플라스틱 분해 돕는 미생물 발견

농진청, 영농 폐비닐 등 농업용 플라스틱 친환경적 분해 연구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표면을 변형·분해해 물리 화학적 내구성을 약화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농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폴리스티렌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에 쓰인다. 이렇게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은 분해되지 않아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은 국내 농경지와 산림에서 분리한 곰팡이 플레

우로부스 속 KACC 83073BP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다. 이 미생물들은 폴리에틸렌 필름 표면에 붙어 생물학적 분해의 첫 단계인 열화(산화) 과정을 촉진하고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특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단일 처리했을 때 멀칭 필름 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미생물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였다. 군주 처리 10일 후 플레우로부스 속 KACC 83073BP를 단일 처리했을 때보다 산화 효과가 44.7% 우수했다. 플레우로부스 속 KACC 83073BP는 단일 처리할 때보다 프리아스티아

속 HRK33 KACC 81283BP와 함께 배양할 때 폴리에틸렌 초기 산화 개시율이 50% 이상 단축됐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산화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결과가 보고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찾은 미생물은 약 7일간 배양했을 때 폴리에틸렌 표면의 산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분해 촉진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상범 과장은 "매년 버려져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상당해 이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옥기 기자

LX공사, 비대면 민원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 어명소가)가 어디에서나 지적측량 결과 관련 민원상담이 가능한 비대면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LX공사는 그동안 광역·대도시 위주로 운영했던 22개 LX디지털상담소를 지방 소도시를 포함한 전국 58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LX디지털상담소는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지적측량 결과 민원 및 무료 법률상담 시스템으로 지난해 전국 22개 LX 사옥에 설치·운영해 디지털 약자 등 민원 취약계층의 편의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LX디지털상담소 확대 운영으로 지적측량 민원인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해 원격에서 측량자와 도면·사진 등을 통한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 가능해 민원처리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LX공사는 비대면 민원상담 단계에서 메타버스 지적측량서비스도 제공한다. 메타버스 지적측량서비스는 LX공사가 보유한 드론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현실과 동일한 3차원 가상공간을 구축,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측량현장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어디에서나 지적측량 결과 관련 민원상담이 가능한 비대면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LX디지털상담소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

도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에서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신규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5실(14㎡ 3실, 30㎡ 2실) 예정이며, 도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사행성 조장업종과 금융·보험·주점·숙박·유흥업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예비창업자)는 기본 1년 계약 후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사업자 지원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자치도,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시군 확대 641건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기업에 로사할 해결을 위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14개 시군에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14개 시군으로 확대된 이후 1분기 전북도 및 시군에서 총 2,79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제를 운영, 이 수치는 도내 제조업체 8,893개 중 3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북자치도가 1분기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점검 결과, 기업들로부터 641건의 다양한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인력 수급 문제 100건을 비롯해 관료(마케팅) 92건, 자금 79건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애로사항 중 303건(47.3%)이 해소됐으며, 126건(19.7%)은 단기 검토가, 189건(29.5%)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23건(3.6%), 규정위반 등 법제도 관련에 불과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